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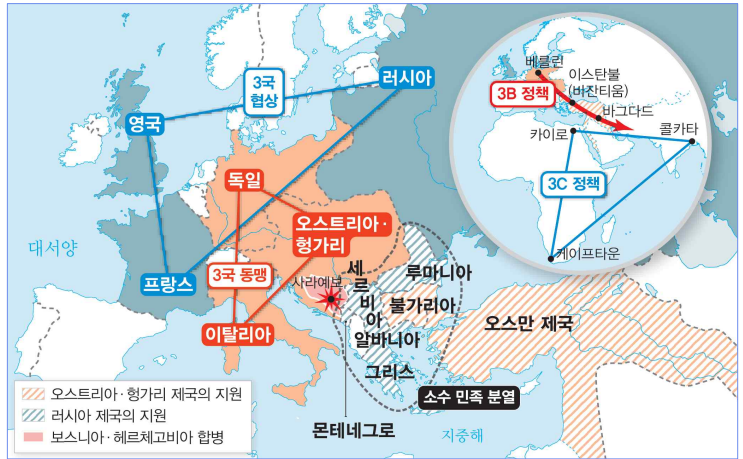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제1차 세계 대전(1914 ~ 1918)의 원인]

01. 독일의 대외 정책 변화

- 1) 비스마르크(1815 ~ 1898)
 - 유럽의 현상 유지와 프랑스 고립화 추진
 - 삼제 동맹(1873)
 - : ~ 오스트리아, 러시아
 - 삼국 동맹 체결(1882)
 - :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 2) 빌헬름 2세(②, 재위 1888 ~ 1918)
 - 3B 정책(대외 팽창 정책)
 - : 베를린 ~ 비잔티움 ~ 바그다드
 - 모로코 사건
 - : ⇔ 프랑스, 1905·1911
 - 범게르만주의 표방
 - : 발칸 반도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후원
 - : 범슬라브주의(러시아의 세르비아 후원)와 충돌



〈제1차 세계 대전 직전의 유럽〉

02.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

- 3C 정책
 - : 카이로 ~ 케이프타운 ~ 콜카타
- 삼국 협상 성립(1907)
 - : 러·프 동맹(1894) ⇔ 영·프 협상(1904) ⇔ 영·러 협상(1907)
 - : 독일의 팽창 견제



〈영국의 3C 정책〉

03. 발칸 전쟁(1912 ~ 1913)

- 발칸 반도
 - : 유럽의 화약고(범게르만주의 ⇔ 범슬라브주의)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합(1908)
 - : 슬라브계 민족의 독립 저지 시도
- 제1차 발칸 전쟁(1912)
 - : 제1차 발칸 동맹(세르비아·불가리아·그리스·몬테네그로 등) ⇔ 오스만 제국
 - : 동맹국이 승리하여 발칸 반도의 대부분 차지
- 제2차 발칸 전쟁(1913)
 - : 세르비아의 알바니아 지역 병합 시도 ⇔ 오스트리아의 방해로 좌절 ⇔ 제2차 발칸 동맹(세르비아·그리스 등) 결성 ⇔ 제2차 발칸 동맹국과 불가리아의 충돌
 - : 불가리아의 패배와 영토 상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제1차 세계 대전(1914 ~ 1918)의 발발과 전개]

01. 사라예보 사건(1914. 6월 28일)

-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의 대립 격화
- 세르비아의 청년이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 암살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 세르비아에 선전 포고
- : 동맹국과 협상국의 참전
- :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의 동맹국 가담
- : 동맹국이었던 이탈리아는 협상국 측에 가담(1915)



〈사라예보 사건〉

02. 독일군의 서부 전선

- 벨기에 침공(1914) ⇨ 프랑스로 진격 ⇨ 영국의 프랑스 지원
- 마른(1914) 전투, 솜 전투(1916)
- : 독일군의 패배
- :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짐, 참호전(신무기의 공격을 피해 참호를 파고 전투) 전개

03. 독일군의 동부 전선

- 러시아 영토 진격
-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 발생(1917. 3월)
- 단독 강화(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1918. 3월 3일)
- :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 ~ 독일,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 등

04. 전세의 변화

- 영국 해군의 북해 봉쇄 → 독일의 고립 시도
-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전개
- : 영국 국적의 여객선 루시타니아 호 침몰(뉴욕 → 리버풀, 1915. 5월 7일)
- 치머만 전보 사건(1917. 1월)
- :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한다면 멕시코가 미국에 빼앗긴 모든 영토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
- : 독일이 비밀리에 멕시코와 동맹 추진
- 미국 의회의 대독 선전 포고 결정(1917. 4월 6일)
- : 미국의 참전으로 전세가 연합국에 유리하게 전개

지난 2월 1일을 기해 독일 정부는 법이나 인간애의 억제력을 깡그리 무시한 채, 잠수함을 동원해 영국과 아일랜드, 유럽 서부 해안 또는 지중해에 있는 독일의 적들이 관할하는 항구에 접근하려는 모든 선박을 침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통상에 대한 독일 잠수함의 전투 행위는 인류에 대한 전투 행위입니다. 미국 선박이 침몰되고, 미국 국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립국의 선박과 국민도 똑같이 바다에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 미 대통령 윌슨의 연설(1917. 4. 2)



〈독일 U보트〉

- 독일의 서부 전선 총공격 단행과 실패(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 『서부 전선 이상 없다』, 1929)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제1차 세계 대전의 전개(1914 ~ 1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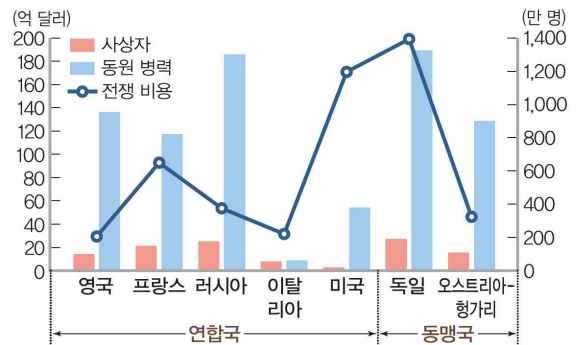
[★제1차 세계 대전(1914 ~ 1918)의 중점]

01. 동맹국의 탈퇴와 항복

- 독일의 서부 전선 총공세 실패
-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등의 항복

02. 독일 제국의 정치 변화

- 킬 군항 수병들의 반란 및 11월 혁명 발생(1918)
 - : 빌헬름 2세(재위 1888 ~ 1918)의 폐위 → 네덜란드 망명
 - : 군주제 폐지와 공화국 선포
- 협상국 ~ 독일 임시 정부의 휴전 조약 체결
 - : 전쟁 종결(1918. 11월 18일)
- 제헌 의회 소집(바이마르, 1919. 2월)
 - : 초대 대통령 선출, 최초 정부 구성
 - : 바이마르 헌법 채택(공화정체, 1919. 7월)
 - : 바이마르 공화국(Weimarer Republik, ~ 1933)



<제1차 세계 대전의 피해, 『더 타임스 세계사』(2016)>

03. 전쟁의 특징

- 전·후방의 구분 없이 국가 전체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총력전 전개
- 기관총, 탱크, 전투기, 잠수함, 독가스 등 신무기 등장

04. 문예 사조의 변화

- 다다이즘(Dadaism)과 초현실주의(Surrealism)의 등장
- : 보수적인 문화 및 예술에 대한 기존의 가치 부정과 전쟁 반대 운동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제1차 세계 대전(1914 ~ 1918) 이후의 세계]

01. 파리 강화 회의(1919. 1월 ~ 1920. 1월)

-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전승국 대표들이 참가해 전후 처리와 평화 수립 논의
- 윌슨이 제창한 평화 원칙 14개조에 따라 진행

02. 베르사유 조약 체결(1919.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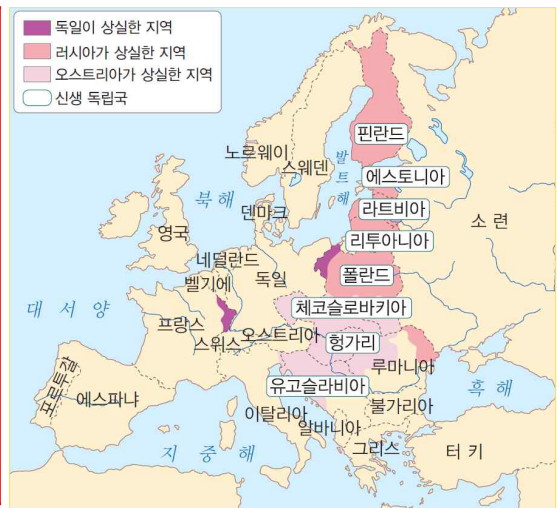
- 전승국의 이익을 보장하고 패전국인 독일에 대한 응징
- 독일의 모든 식민지 상실, 알자스·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양도, 군비 축소, 막대한 배상금 지불

제45조 독일은 프랑스 북부의 탄광 지대를 파괴한 보상으로 자르 강 유역에 있는 탄광 지대의 독점 채굴권을 포함한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소유권을 프랑스에 넘겨준다.

제119조 독일은 해외 식민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요구를 동맹국과 연합국의 주요 국가에 넘겨준다.

제173조 독일에서 일반 의무병제는 폐지된다. 독일 육군은 지원병제로만 조직하고 보충할 수 있다.

제235조 독일은 동맹국과 연합국의 청구액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배상 위원회가 정하는 지급 방법에 따라 200억 마르크 금화에 상당하는 돈을 1921년 4월까지 지불한다.



(베르사유 체제 하의 유럽)

03.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s) 창설(1920. 1월)

-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제창
- 제1차 세계 대전에 대한 반성과 평화를 위한 노력 → 최초의 국제 평화 기구(제네바)
- 미국 불참(의회 반대)
- 독일과 소련 제외 → 독일(1926), 소련(1934) 가입
- 군사적 제재 수단 미비

04.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

- 워싱턴 회의(1921 ~ 1922)
: 해군력 제한 등 군비 감축 논의
- 로카르노 협정(1925)
: 독일의 알자스·로렌 지방 포기, 라인란트 영구 비무장화, 독일의 국제 연맹 가입 결정
- 켈로그·브리앙 조약(= 파리 조약, 1928)
: 미국(켈로그), 프랑스(브리앙), 영국 등 15개국의 합의

제1조 조약 체결국은 국제 분쟁을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을 비난하며,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2조 조약 체결국은 상호 간의 분쟁을 오직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제1차 세계 대전(1914 ~ 1918) 이후의 세계]

05. 독일의 배상금 문제 논의

- 도스안(Dawes Plan, 1924)
: 독일의 배상금 지급에 불만을 품은 프랑스가 루르 지방을 강제 점령(1923)
: 미국의 자본 8억 달러 투입
- 영안(Young Plan, 1929)
: 배상 금액을 1/4 정도인 358억 마르크로 탕감하고 지불 기한을 59년으로 연장
- 로잔 회의(Conference of Lausanne, 1932)
: 배상 금액을 1/12 정도인 30억 마르크로 삭감

06. 전후 유럽의 민주주의 발전

- 1) 영국의 정치 변화
 - 노동당 내각 수립(1924), 여성에 대한 참정권 인정(1918 → 1928)
- 2)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1919 ~ 1933)
 - **바이마르 헌법**(1919. 7월)

제1조 독일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2조 국회의원은 비례 대표제의 원칙에 따라 20세 이상 남녀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된다.
제159조 노동 조건 및 경제 조건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단결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된다. 이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모든 협정과 조치는 위법이다.
제165조 노동자 및 고용인은 임금 및 노동 조건에 관한 규정과 생산력의 모든 경제적 발전에 관하여 기업가와 대등한 권리를 갖고 함께 협력할 것을 요청받는다.

- 3)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붕괴
 -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1919 ~ 1934), 헝가리 제1공화국(1918 ~ 1919)
- 4) 오스만 제국의 붕괴
 - **무스타파 케말**(1881 ~ 1938)
: 청년 장교들과 함께 **터키 공화국 선포(1923)**
: 이슬람교의 영향력 축소 → 술탄 제도 폐지, 세속화와 서구화 추진
: 일부다처제 폐지, 남녀평등권 도입, 로마자 표기법 도입 등 근대화 노력



〈무스타파 케말의 문자 제정〉

07. 서아시아, 아프리카의 변화

- **팔레스타인 분쟁의 발단**
: **후세인·맥마흔 비밀 서한**(1915), 사이크스·피코 협정(1916), **벨푸어 선언**(1917)
- 제1회 범아프리카 회의 개최(파리, 1919)
: 하나의 아프리카 건설 표방, 노예 제도 폐지와 아프리카인의 보호를 위한 국제법의 정비 등 결의

두 차례의 세계 대전

[★러시아 혁명]

01. 혁명 이전의 정세

- 공업 도시(상트페테르부르크) 발달과 노동자 계급 성장
- 피의 일요일 사건(1905. 1월 22일)

: 러일 전쟁(1904 ~ 1905)에서 열세, 차르(tsar, 이반 4세, 1547 ~)의 전제 정치에 대한 불만 고조
: 8시간 노동, 의회 소집, 시민적 자유 등을 황제에게 진정하기 위한 평화로운 군중 시위 발발

폐하! 저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노동자와 주민들, 저희 처자식과 늙은 부모들은 정의와 보호를 구하러 당신께 갑니다. …… 즉각 러시아의 모든 계급과 신분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부여하며, 자유롭게 선거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 차르 수비대의 무력 진압과 사상자 발생

- 니콜라이 2세(재위 1894 ~ 1917)의 10월 선언
- : 시민적 자유와 국회 소집 약속 → 두마 의회 개설(1906)

02. 혁명의 전개(1917)

1) 3월(러시아력 2월) 혁명

- 제1차 세계대전 참전과 거듭된 패전 ⇨ 전쟁 장기화 ⇨ 식량 부족, 물자 부족과 물가 폭등
- 페트로그라드에서 식량 배급, 전쟁 중지, 차르 전제 정치의 타도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 파업 발생

우리는 부서의 창문을 통해 내다보이는 골목에서 울려 퍼지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물가고를 해결하라!”, “굶주림을 없애라!”, “노동자에게 빵을!” 나와 몇 명 동료들은 즉시 참가로 달려갔다. …… 투쟁적인 분위기에 휩싸인 여성 노동자들의 무리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우리를 본 사람들이 “나와요!”, “작업을 멈춰요!” 라고 외치면서 손을 흔들기 시작하였다. 눈물치가 창문으로 날아들었다. 우리는 시위에 참가하기로 결심하였다. - 페트로그라드 노벨 기계 제작소 노동자의 회고

- 노동자·병사 대표 소비에트(Soviet, 평의회)를 조직하여 혁명 추진
- 니콜라이 2세(1868 ~ 1918) 퇴위와 로마노프 왕조의 붕괴
- 케렌스키(1881 ~ 1970) 주도의 임시 공화 정부 수립

2) 11월(러시아력 10월) 혁명

- 케렌스키 임시 정부의 전쟁 지속, 토지 제도 개혁 연기 등 미온적 개혁
- 4월 테제(April Theses, 레닌, 스위스)
: 전쟁 중지, 모든 권력의 소비에트 이양, 지주의 토지 몰수와 국유화 등 주장
- 레닌과 트로츠키가 이끄는 볼셰비키(Bolsheviki, 다수파)의 무장 봉기

임시 정부는 타도되었다. 임시 정부의 각료는 거의 체포되었다. 소비에트 정권은 지주·귀족 및 교회의 토지를 무상으로 농민 위원회에 넘겨 그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또 군대의 완전한 민주화를 이루어 병사의 권리를 지켜 주고, 생산을 노동자가 통제하는 제도로 만들고, 적당한 시기에 헌법 제정 의회를 소집할 것을 보장하고, 도시에 대한 곡물 공급과 농촌에 대한 생필품 공급에도 신경을 쓰며, 러시아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진정한 자결권을 보장할 것이다.

-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의 선언문(1917. 11. 8.)

두 차례의 세계 대전

[혁명 이후의 러시아]

01. 레닌(1870 ~ 1924)의 소비에트 정부

- 의회 해산 등 볼셰비키의 일당 독재
-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체결(1918. 3月)
: 폴란드·발트해 연안·벨로루시의 할양, 우크라이나 독립 승인, 전쟁 배상금 지급
- 사회주의 경제 개혁 추진
- 내전(백색군 ⇄ 적색군) 발생
- 코민테른(Comintern) 창설(제3차 인터내셔널, 1919 ~ 1943)



(레닌)

- 1900년 독일 망명 『이스크라(불꽃)』 창간
- 1905년 러시아 귀국
- 1907년 스위스 망명
- 1917년 러시아 귀국 볼셰비키 혁명 『제국주의론』 저술

02. 레닌의 신경제 정책(Novaya Ekonomicheskaya Politika, 1921 ~ 1928)

- 급속한 공산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해결과 국민 불만 해소
- 시장 판매와 같은 자본주의적 요소의 일부 도입
- 개인 농장 부활, 소기업인과 관리자들(Nepmen)의 성장

01. …… 농촌 경제를 강화시켜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 국가가 식량, 원료 및 사료들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식량 할당 징발제 대신에 현물세를 실시한다.
02. 이 현물세는 식량 할당 징발제를 통하여 지금까지 부과된 액수보다 적어야 한다.
03. 현물세를 납부하고 농민들의 손에 남는 모든 식량과 원료 및 사료의 처분은 그들의 재량에 맡기며, ……
- 신경제 정책에 관한 제10회 당 대회 결의(1921. 3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SSR, 1922. 12月 ~ 1991. 8月)]

01. 성립

- 소비에트 러시아 중심
- 우크라이나, 벨로루시(벨라루스) 등 주변의 소비에트 정부 흡수

02. 스탈린(1878 ~ 1953)의 독재 체제

- 소련 공산당 서기장(1922 ~ 1953)
- 정권에 대한 비판 금지, 반대자들을 감금하는 수용소[굴라크(Gulag), 1930 ~ 1955] 건설
- 신경제 정책을 폐지하고 사회주의 통제 경제 정책 강화
- 토지와 농민을 묶어 집단 농장으로 운영
: 1930년대 농업 위기 초래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1928 ~ 1932)
: 중공업 육성, 공장과 댐을 건설하고 새로운 광산 개발



▣ 후세인 · 맥마흔 비밀 서한(1915)

아덴과 시리아 서쪽 지역을 제외한 모든 아랍 지역의 독립을 지지한다. …… 영국은 다양한 지역에 가장 적절할 형태의 정부가 수립되도록 아랍인에게 조언하고 도움을 줄 것이다.

▣ 벨푸어 선언(1917)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유대 민족을 위한 민족의 본거지를 건설하는 일에 호의를 보이며, 이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현재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는 비유대인 단체의 시민적·종교적 여러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또 다른 나라에서 유대인이 누리고 있는 여러 권리 및 정치적 지위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

- 01. 공개적으로 체결된 공공연한 강화 조약 이외에는 이후 어떤 비밀스러운 국제적 양해도 있을 수 없다.
- 05. 식민지 주권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 주민의 이익은 앞으로 지위가 결정될 정부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다룬다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한다. 또한 모든 식민지의 요구들에 대해 자유롭게 편견 없이 또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조정한다.
- 14.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상호 보장하기 위해 국가들 간의 특정 협약 하에 하나의 일반적인 연합 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개념 Check

- ① 제1차 세계 대전 직전의 3국 협상국에는 영국, 프랑스, ()가 있었다.
- ② 1914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한 () 사건을 계기로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였다.
- ③ 미국은 제1차 세계 대전 중 독일이 전개한 ()을 계기로 협상국 편에 참전하였다.
- ④ 니콜라이 2세는 ()을 계기로 두마(의회)의 입법권 조장 등 개혁을 약속하였다.
- ⑤ 1917년 11월(러시아력 10월)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를 중심으로 노동자와 병사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켜 임시 정부를 무너뜨리고 () 정부를 수립하였다.
- ⑥ 러시아 혁명 성공 이후 레닌은 급격한 공산화에 따른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을 시행하였다.
- ⑦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은 전승국과 ()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해외 식민지를 상실하였다.
- ⑧ 1920년에 창립된 ()에는 미국이 불참하였고, 독일과 소련은 제외되었다.

01

(가), (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9월 모의평가]

영국 정부는 원래 수에즈 운하 건설 계획에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운하 건설을 주도한 다른 유럽 국가가 이집트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가) (으)로부터의 이집트 독립을 지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집트가 독립하면, (가)의 세력이 약화되는 만큼 인접한 (나)의 힘은 강화될 것이 분명하였다. 사실 (나) (은)는(는) 그리스 독립 전쟁을 지원한 이래 팽창의 야망을 드러냈고, 이에 맞서 영국은 전쟁까지 불사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조선업자와 면 제조업자 등 기업가들은 정부와는 달리 경제적 이유로 운하 건설에 찬성하였다.

- ① 이란을 침략하여 분할하였다.
- ② 발칸 전쟁에서 동맹 관계를 맺었다.
- ③ 필리핀 지배를 두고 전쟁을 벌였다.
- ④ 제1차 세계 대전에서 교전을 벌였다.
- ⑤ 모로코에서 두 차례 군사 충돌 위기를 겪었다.

03

다음 기상 편지에서 밑줄 친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은?[2020-9월 모의평가]

친구여,
러시아가 우리 제국을 위협하여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곳 빈을 포함한 유럽의 엘리트들은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이미 예상 했었네. 한 달여 전 발칸의 테러리스트가 초래한 우리 황실의 비극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 비극이 도화선이 되어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접했네. 이 전쟁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질 것 같은 암울한 예감이 드네.

- ① 북독일 연방이 결성되었다.
- ②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었다.
- ③ 빌헬름 1세가 독일 제국을 선포하였다.
- ④ 러시아에서 피의 일요일 사건이 일어났다.
- ⑤ 독일이 식민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

02

밑줄 친 '임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2021-6월 모의평가]

노동자, 병사, 농민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혁명을 통해 차르와 귀족의 전제정을 타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부르주아 집단의 전제적인 임시 정부를 타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페트로그라드에 대한 공격을 막아 내고, 내부의 반혁명 세력을 철저히 무장해제 시키고, 혁명 세력을 확고히 조직하여 민중 강령을 확실히 실현하는 것입니다.

- ① 코민포름이 창설되었다.
- ② 니콜라이 2세가 집권하였다.
- ③ 독일과의 전쟁이 지속되었다.
- ④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⑤ 신경제 정책[NEP]이 실시되었다.

04

(가), (나)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6월 모의평가]

○○○학회 학술 대회: 러시아 혁명과 전쟁
 일시: 2017년 △△월 △△일 장소: □□대학교 □□강당

(가)에서 러시아가 볼리헤지자 전쟁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차르가 이를 무시한 것이 2월 혁명의 주요한 원인이었죠.

맞습니다. 러시아에서 혁명은 전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돌이켜보면 '피의 일요일 사건'도 (나)의 전개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 ① (가) - 독일이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면서 확대되었다.
- ② (가) - 두마 설치 등 니콜라이 2세의 개혁이 선언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나) - 러시아에서 농노해방령이 선포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④ (나) -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 ⑤ (가), (나) 사이에 발칸 전쟁이 일어났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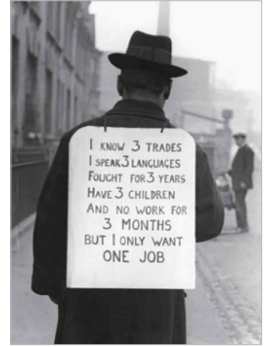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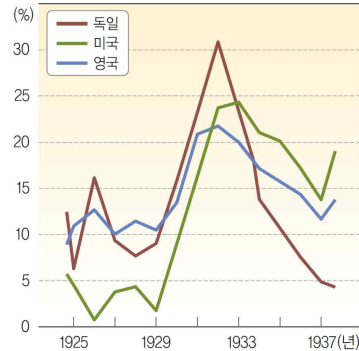
[대공황의 발생]

01. 배경

-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과잉 생산과 투자, 전체적인 소비 시장의 축소
- 미국 뉴욕 증권 거래소의 주가 폭락(검은 목요일, 1929. 10월 24일) → 전 세계로 확산

02. 영향

- 은행, 기업과 공장 도산 → 실업자 급증
- 농산물 가격 폭락
-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 : 정부의 통제 경제 정책 강화
 - : 전체주의의 확산



〈대공황 시기 주요 국가의 실업률〉

〈실업자의 구직 호소문〉

[★자유 진영의 대응]

01.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1933 ~ 1945)의 뉴딜 정책

- 테네시 강 유역 개발 공사(국토 개발과 실업자 구제)
-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

농업 조정법(AAA)	• 연방 정부의 농업 생산 조절, 1933
전국 산업 부흥법(NIRA)	• 국가가 생산 조절, 최저 가격과 노동 시간 규정, 1933
전국 노동 관계법(Wagner Act)	• 최저 임금제, 최고 노동 시간 규정, 단체 교섭권 보장, 1935
사회 보장법(Social Security Act)	• 노인, 유족, 실업자, 산업 재해,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부조 체제 시행, 1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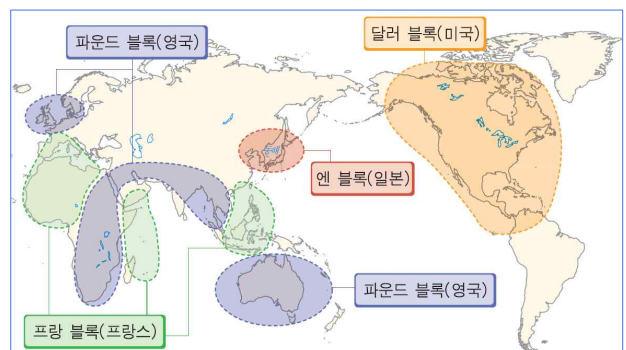
-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선린외교 정책
 - : 달러 블록 형성

02. 영국

- 맥도널드 내각 구성(노동당이 보수당과 거국 내각 결성, 1924 · 1929 · 1931)
 - : 국가 재정 삭감, 공업과 농업의 통제 강화
- 오타와 연방회의 개최(1932)
 - : 보호 관세, 파운드 블록 형성

03. 프랑스

- 좌파 중심 인민전선 내각 수립(1936)
- 노동자 생활 개선 추구
 - : 40시간 노동제, 단체 교섭권 확립 등
- 프랑 블록 형성



〈대공황 이후 경제 블록의 형성〉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전체주의의 등장]

01. 배경

- 베르사유 체제의 유럽
- : 민주주의 발전
- : 사회주의와 연계된 노동 운동 활성화
- ⇨ 파시즘(fascism) 등장

02. 특징

- 국가 지상주의, 일당 독재, 군국주의, 팽창주의
- 언론과 사상 통제, 노동 운동 탄압

▣ 무솔리니의 파시즘

파시스트에게 있어서 모든 국가 안에 있으며 국가 밖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파시즘은 일국일당이며 전체주의자의 국가는 사람들의 온전한 삶에 힘을 준다. 우리들은 정치를 통제하고, 정신을 통제하고, 경제를 통제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파시스트 조합 국가의 한복판에 있다. 우리의 신념은 다음과 같다.

“모든 것은 국가 안에 있다. 국가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국가에 대립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조지 셀데즈, 『명언 사전』

[★각국의 전체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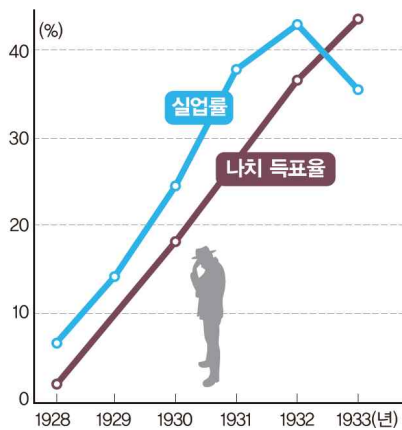
01. 이탈리아의 파시즘(fascism, 結束主義)

- 전후 물가 폭등, 실업자 증가
- 무솔리니(1883 ~ 1945), 파시스트당 결성(1919)
- : 로마 진군(1922. 10月)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일당 독재 체제 구축
- : 민주주의와 자유, 사회주의 부정
- 군국주의와 대외 팽창 정책
- : 알바니아 보호국화(1927), 에티오피아 침공(1935 → 1936), 알바니아 침공(1939)



〈로마 진군〉

02. 독일의 나치즘(Nationalsozialismus, 파시즘과 인종주의의 조합)



〈독일의 실업률 추이와 나치당의 지지율〉

- 바이마르 공화국(1919 ~ 1933)의 경제·사회 혼란
- 나치당(Nazis)의 총선 승리(1932)
- 히틀러(1889 ~ 1945)
- : 총리로 취임(1933)
- : 총통 취임(장검의 밤, 1934)
- : 아리아인 우월주의[인종주의]를 내세워 반(反)유대 정책 추진
- : 국제연맹 탈퇴(1933) → 재무장 선언(1935)
- : 라인란트 점령(1936. 3月)
- 비밀경찰(게슈타포)과 친위대(슈츠슈타펠, = SS) 창설
- 괴벨스(1897 ~ 1945) 문화부 장관
- : 의회주의 무시, 개인의 자유 부정, 획일적 사상 통제

03. 일본의 군국주의

- 재벌(자이바쯔)과 군부 및 보수 세력의 결집 → 산업화와 군비 확장 모색
- : 만주 사변(1931) ⇨ 만주국(1932) ⇨ 5·15 사건 ⇨ 국제 연맹 탈퇴(1933) ⇨ 중일 전쟁(1937)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전(前) 유럽의 상황]



<게르니카>

01. 에스파냐 내전(1936 ~ 1939)

- 좌파 인민 전선 정부 수립(1936. 2월)
- 프랑코 군부 세력의 쿠데타 선언(모로코, 1936. 7월)
: 독일·이탈리아의 추축국 동맹 체결과 지원(1936) ⇨ 본국 상륙 ⇨ 프랑코 정권 수립(1939)

02. 방공 협정 체결(1937)

- 국제연맹 탈퇴
: 독일(1933), 일본(1933), 이탈리아(1937)
- 3국 추축(樞軸, 중심축) 진영 형성
: 독일과 일본의 방공 협정 체결(1936) ⇨ 이탈리아의 방공 협정 가입(1937)

03. 독일의 팽창

- 오스트리아 병합(1938. 3월) ⇨ 수데텐 지방 요구(1938. 9월) ⇨ 뮌헨 회담(1938. 9월)에서 수용
- 체코슬로바키아 점령(1939. 3월)
- 폴란드의 단치히 회랑 요구 ⇨ 영국·프랑스의 반대 ⇨ 폴·영·프 상호 원조 조약 체결(1939. 3월)
-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1939. 8월)

제1조 독일과 소련은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세력과 연합하여 서로에 대해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는다.
제2조 조약 체결국 한쪽이 제3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체결국은 그 세력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3조 체결 당사자인 양국은 공동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한다.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과 전개(1939 ~ 1945)]

01. 독일의 침략

- ① 폴란드 침공(1939. 9월 1일) ⇨ 영국과 프랑스의 대독 선전 포고
- ②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침략(1940. 4월) ⇨ 파리 점령(앙리 페탱, 비시 괴뢰 정권 수립, 1940)
- ③ 그리스, 이집트 침공(1940)
- ④ 독·소 불가침 조약 파기 ⇨ 소련 영토로 진격(1941. 6월)
: 전쟁 장기화에 대비, 식량과 석유 확보 목적

02. 연합국의 대응

- 드골을 중심으로 자유 프랑스(영국, 망명 정부) 수립
: 레지스탕스 운동(독일에 대한 항전) 전개
- 영국의 처칠 내각(1940 ~ 1945)
: 독일군 상륙 저지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과 전개(1939 ~ 1945)]

03. 대서양 헌장(1941.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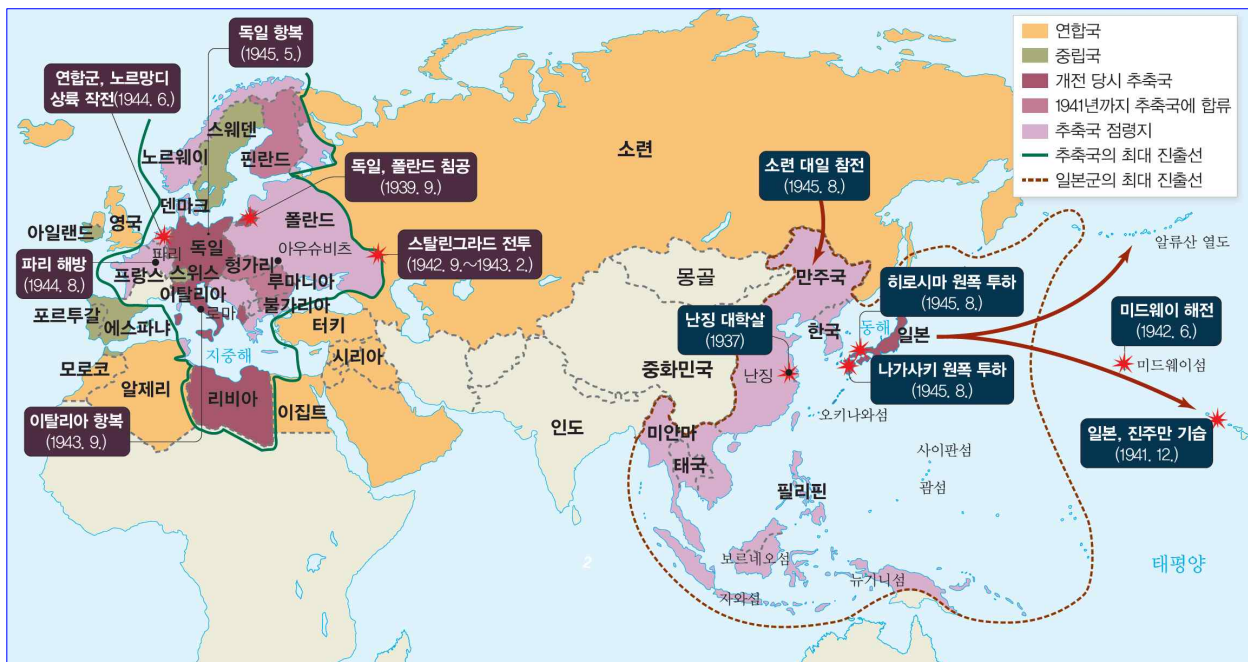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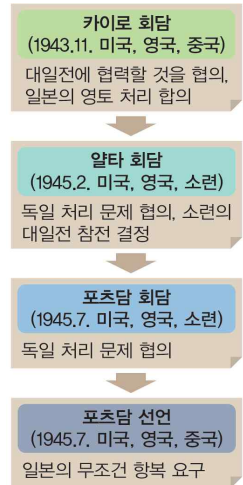
- 루스벨트와 처칠 회동
- 전후 자유 무역 활성화와 국제 평화 수립의 원칙 천명

04. 태평양 전쟁 발발(1941. 12. 7)

- ABCD(미국·영국·중국·네덜란드) 포위망으로 경제 봉쇄
-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

05. 연합국의 반격과 전후 처리 논의

- ① 미국의 미드웨이 해전 승리(1942. 6월)
- ② 독일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패배(1942 ~ 1943월)
- ③ 이탈리아 항복(1943. 9월)
- ④ 카이로 회담(1943. 11월), 테헤란 회담(1943. 11월)
- ⑤ 노르망디 상륙 작전(1944. 6월) → 파리 해방(1944. 8월)
- ⑥ 알타 회담(1945. 2월)
- ⑦ 독일 항복(1945. 5월)
- ⑧ 포츠담 회담(1945. 7월)
- ⑨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1945. 8. 6) →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1945. 8. 9)
- ⑩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1945. 8. 15)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

01.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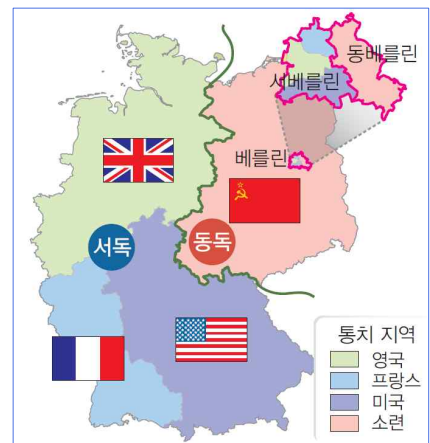
- 연합국과 패전국 간의 개별 조약 체결

02. 전범 처벌을 위한 국제 군사 재판 개최

- **뉘른베르크 재판**(1945 ~ 1946)
- 극동 국제 군사 재판(= 도쿄 재판, 1946 ~ 1948)

03. 독일과 일본, 오스트리아의 변화

- 독일
 - : 알타 회담에서 분할 논의 → 미·영·프·소 4개국의 **분할**
- 일본
 - : 연합국 최고 사령부(SCAP, 1945 ~ 1952)의 지배
 -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1951) → 주권 회복
- 오스트리아
 - : 제2 공화국 성립 → 중립국화



〈독일의 분할 관리〉

[국제 연합(United Nations)의 성립]

01. 과정

- **대서양 헌장**(1941. 8월)
 - : 전후 평화 수립의 원칙을 제시하여 국제 연합 창설의 기초 마련
- **샌프란시스코 회의**(1945. 6월)
 - : 국제 연합 헌장 채택 → 정식 출범(51개국 참가)

제1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을 없애고 침략 행위와 그 밖의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국제 분쟁과 사태를 평화적 수단에 따라,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거나 해결한다.

제24조 국제 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 연합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안전 보장 이사회**에 부여한다.

제42조 안전 보장 이사회는 정해진 조치로는 불충분하다고 인정하거나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공군·해군 및 지상군에 의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02. 국제 연맹과 국제 연합의 비교

국제 연맹(1920. 1월)	국제 연합(1945.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제네바(본부) • 미국, 소련 등 불참 → 소련 가입(1934) • 경제 제재 이상의 제재 수단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뉴욕(본부) • 미국, 소련 참여 →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 국제 연합군 → 국제 분쟁에 무력 제재



전체주의

- 파시스트의 국가 개념은 모든 것을 포괄한다. 국가를 떠나서는 어떤 인간적이거나 정신적인 가치도 효력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존재할 수조차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파시즘은 전체주의적이고, 파시스트 국가는 국민의 삶을 해석하고 발전시키고 고양한다. 국가를 떠나서는 어떤 개인도, 어떤 집단(정당, 결사, 노동 조합, 사회 계급)도 있을 수 없다.

- 무솔리니, 『파시즘 독트린』, 1932

- 우리는 개인과 계급 상호 간의 투쟁을, 신분과 종파와 정당 상호 간의 투쟁을 종식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토대 위에 독일 민족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모두가 여기 본인의 앞에서 있는 것과 같은 독일 민족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이 오직 민족으로서만 존속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정당 등의 집합으로서로는 존속할 수 없다는 확신을 이 민족에게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 히틀러의 연설, 1937. 10. 4.

- 믿으라, 복종하라, 싸우라! 게으른 자는 키우지 마라. 왜냐하면 일하지 않는 자, 생산하지 않는 자는 좋은 이탈리아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급자의 명령에 토를 달지 마라. 내 집이 두 쪽 나도 조국이 중요하다.

- 리토리오 이탈리아 청년단의 좌우명

- 우리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이 피의 깃발 앞에서 나는 조국의 구원자인 아돌프 히틀러에게 나의 모든 힘을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그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치고자 하오니,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 히틀러 유겐트 가입 선서

독일의 나치즘

언제나 가장 강한 종족이 살아남아 세계를 지배한다. …… 그렇다면 가장 강한 종족은 어떤 종족인가? 그것은 바로 아리아인이다. …… 이런 아리아인을 오염시켜 인류를 퇴보하게 만들려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 히틀러, 『나의 투쟁』

개념 Check

-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의 극복을 위해 () 정책을 실시하였다.
- ()는 1934년 총통으로 취임한 뒤 반(反)유대 정책을 강화하였다.
- 독일, 일본, ()는 1937년 3국 방공 협정을 체결하여 추축국(樞軸國)을 형성하였다.
- 1939년 9월 독일이 ()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였다.
- 루스벨트와 처칠은 전후 자유 무역 활성화와 국제 평화 수립의 원칙을 천명한 () 헌장을 발표하였다.
- 1941년 12월 일본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여 () 전쟁을 일으켰다.
- 국제 연합(the United Nations)에서는 ()의 결의가 총회의 결의보다 우선한다.

01

밑줄 친 ‘점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로 옳은 것
민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21-수능]

세계사 신문 ○○○○년 ○○월 ○○일
(기획 특집: 20세기의 사건)
독일, 체코슬로바키아를 거냥하다!



히틀러의 집권 이후 재무장한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서부 지역 일대를 요구하였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 등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윈헨 협정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히틀러는 나머지 지역까지 요구하며 팽창의 야욕을 드러내는 가운데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점령을 감행하였다.

▲ 독일 재무장 이전 체코슬로바키아와 주변국

<보기>

- ㄱ. 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 ㄴ.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었다.
- ㄷ. 독일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을 공격하였다.
- ㄹ.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 침공을 단행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03

밑줄 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은?[2020-수능]

세 계 사 신 문 2019년 ○월 ○일

독일 대통령, 비엘룬을 찾아 용서를 구하다



전쟁 발발 80주년을 맞이하여 슈타인 마이어 대통령이 폴란드의 비엘룬을 찾았다. 비엘룬은 독일 공군의 기습 폭격으로 민간인 1,200여 명이 사망한 곳이다. 이들은 6년에 걸친 전쟁의 첫 희생자였다. 대통령은 "폭격으로 희생당한 분들을 애도하며 독일의 침략으로 고통당한 폴란드인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 폭격으로 파괴된 비엘룬

- ① 브레턴우즈회의가 열렸다.
- ② 도스안과 영안이 마련되었다.
- ③ 에스파냐 내전이 발발하였다.
- ④ 3국 방공 협정이 조인되었다.
- ⑤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었다.

02

다음 발표기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2021-6월 모의평가]

오늘 새벽 4시, 선전 포고도 없이 독일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였습니다. 저들은 비행기로 키예프, 세바스토폴 등 우리의 도시를 폭격하였습니다. 이는 배신행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독일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성실하게 지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자행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우리 땅을 침공했을 때 우리의 대답은 조국을 위한 전쟁이었고, 패배라는 운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군대는 자유를 위해 다시 한번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가)	(나)	(다)	(라)	(마)
3국 협상 성립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대공황 발생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	카이로 회담 개최	북대서양 조약 기구 결성

- ① (가) ② (나) ③ (다)
- ④ (라) ⑤ (마)

04

(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20-6월 모의평가]



- ① (가) -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였다.
- ② (가) -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하였다.
- ③ (나) - 미국이 농업 조정법을 실시하였다.
- ④ (나) - 레닌이 신경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 ⑤ (나) - 무솔리니가 로마 진군을 단행하였다.